5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광주지역 문화·체육·관광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강운태 광주시장과 50명의 토론자 그리고 1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송정역 환승센터·F1예산 반영 안됐다

광주·전남 현안 정부 예산안에 상당수 누락… 사업 추진 '비상'

광주시와 전남도가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현안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해당 부처 예산안에서 누락되면서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 시·도는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보조를 맞춰 예산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2012년 중앙정부 부처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141건 2조4872억원 중 현재까지 114건 2조1230억원이 정부부처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는 요청액 대비 85.3%로, 광주시는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나머지 미반영사업의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2년 신규사업 52건 1930억원, 계속사업 89건 2조2942억원을 요청했으며 이 중 신규사업은 31건 689억원, 계속사업은 83건 2조541억원 등이 각각 정부부처 예산안에 포함됐다.

주요 반영사업은 황룡강 친수레져 하천환경 조성 250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1562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282억원,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73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90억원, 광주 폴리프로젝트 45억원 등이다.

그러나 동광주나들목~광산나들목 간 고속도로확장 40억원, 3D융합산업 육성 320억원, 광주천 유지용수 추가 확보 120억원,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200억원, 프라운호퍼 광학연구소 아시아센터 건립 70억원 등 광주시가 역점 추진한 사업 예산이 줄줄이 누락됐다.

▲전남도=핵심 현안 사업 상당수가 정부 각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채 누락돼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비 확보에 실패할 경우 열악한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만 늘어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조 체계를 구축하면서 국비 챙기기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상당수 현안사업비가 누락되거나 일부만 반영돼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전남도의 최대 현안 사업인 F1 대회의 경우 2012년 F1 대회 개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던 300억원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동측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도 반영되지 못했고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50억), 우주로봇연구센터 설립(35억)을 위해 요청했던 예산도 누락됐다.

전남도의 역점 사업인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 및 경관개선'사업을 위해 요청했던 30억원의 국비 지원도 '특정 시·도 자체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영되지 못했다.

지역 핵심 SOC 사업 등도 줄줄이 누락됐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1000억) ▲영산강 하구둑 대체교량(100억) ▲압해~화원 연결도로(100억) ▲하의~신의 연도교 개설(100억) ▲여수 화태~백양 연도교(100억) 사업 등을 위해 요청했던 국비도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무안공항 활성화 및 여수세계박람회 교통 대책을 위해 추진했던 무안공항(200억) 및 여수공항(200억) 확장 사업비도 국가 계획에 미반영됐다는 점 등으로 부처 예산안에서 빠졌고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 사업비(100억)도 제외됐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필요한 예산도 요청한 109억원 중 20억만 반영돼 이대로라면 대회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윤현석·김지을기자 chadol@

▲ 지역 갈등 부르는 수완지구 수영장 어떻게?

姜시장 "땅값 비싸 건립 힘들다"

광주발전 문화·체육·관광분야 시민 대토론회

▲U대회 선수촌 하도급은 지역업체 100% 참여 요청

▲야구장 신축 어떻게 9월까지 시공업체 결정

사립미술관 예산지원 등 각계각층 정책제안 봇물

광주시가 민선 5기 2년차 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처음 마련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정된 35명과 단체 추천 15명은 물론 시민방청객 1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강운태 광주시장은 물론 관련 실·국 관계자 등이 현장에서 직접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 시민대토론회가 '시민과의 대화'에 이어 또 하나의 시민 소통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소 민감한 사안이었던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수영장 등 시설 입지 ▲광주U대회 선수촌 지역업체 참여 등은 물론 ▲문화산업 발전 방안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민간문화시설 설립 지원책 등과 관련된 교수·일반시민 등의 제언도 잇따랐다.

먼저 임효택(서구 풍암동)·홍우표(첨단스포츠 대표)씨 등은 "광주U대회 경기장시설인 수영장 입지 문제가 지역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며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될 것인지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 시장은 "현재의 수완지구 부지는 높은 땅 값으로 안 된다"며 "부지매입은 100% 시비로 하게 돼 있으며,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시 부담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시장은 부지매입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역대학 등과 논의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정삼도 화정지구 재건축조합장은 "U대회 선수촌 건립과 관련해 시의회 등 일부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명목으로 공동도급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은 반대하고 있다"며 복안을 묻자 강 시장은 "조합원들이 결정할 일로 다만 하도급은 능력 있는 지역기업들이 100% 받도록 해달라고 건설업체에 부탁했다"고 일축했다.

성정훈씨의 야구장 건축과 관련 질의에 대해 강 시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구장으로 만들 생각이며 4분의 1은 지붕을 씌우고 LED 라이트, 태양광 등을 가미하겠다"며 "오는 9월까지 시공업체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종기 운암미술관장은 "사립미술관에 대해 예산 지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과 관심 등이 필요하다"며 "문화도시인 광주에 사립미술관은 5곳, 사립박물관은 아예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명술씨가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가능성을 묻자 강 시장은 "다음 정권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이미 UN과 대학스포츠연맹 등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화영 동구 충장로 상가번영회 회장의 '충장로 5가 중국음식거리 지정', 김홍주 광주관광협회장의 '양동전통시장 내 외국인 전용쇼핑센터 설립', 유방희 광주연예인협회장의 '광주출신 연예인 초청 행사 개최' 등 각 계각층의 정책 제안도 이뤄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청년들 '힘겨운 삶'

절반이상 月 평균 임금 150만원도 안돼

"학자금 때문에 부채 경험"

광주지역 청년층 절반 이상이 월 평균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고, 취업자의 35.3%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광주·전남 청년연대와 광주청년센터, 민주노동당 전주연 광주시의원 등이 지난 4월부터 6월25일까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대학생 제외) 184명을 대상으로 한 '2011년 광주시 청년의 삶' 실태 조사결과 임금 수준은 응답자의 58.7%가 월 평균 1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50만원~200만원 25.1%, 200만원~300만원 11.7%였다.

또 응답자의 47.8%는 2010년 평균 노동임금 절반 수준인 110만 원 이하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지출액은 응답자의 33.3%가 50만원~1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고, 이어 ▲30만원~50만원(25.7%) ▲100만원~150만원(18.6%) ▲30만원 미만(10.9%) 순으로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30.1%가 50만원~100만원, 22.0%는 30만원~50만원을 각각 저축하고 있다고 밝혀 절반 가량이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은 교통·통신비가 18.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식료품비(18.2%), 주거비(12.2%), 교양오락비(12.2%), 보건의료비(11.7%), 피복·신발비(10.6%)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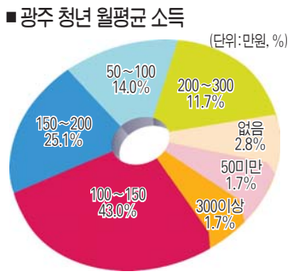
주 평균 근로시간은 29.2%가 40시간 이상 45시간 미만이라고 밝혔고, 26.4%는 50시간 이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59.0%가 정규직이었으며, 35.3%는 비정규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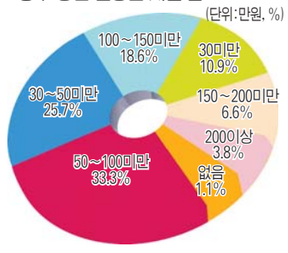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7%가 부채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부채 원인은 학자금 및 교육비가 2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67.0%는 월 1~2회 문화생활을 하는 반면, 13.7%는 전혀 문화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청년 월평균 소득 (단위: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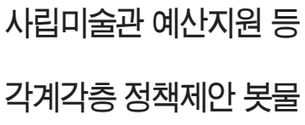
■광주 청년 월평균 지출 합 (단위:만원, %)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트래블 조이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대표이사 최 금 환

제주도



오렌지호&스타크루즈호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3일!!!!

선 박 목포 - 제주도 ₩159,000원~
장흥 - 제주도 ₩179,000원~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항 공 광주 - 제주도 ₩289,000원~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원)
*후원 : 아트랜드, 퍼시픽랜드

광주에서 출발하는 울릉도 1박2일 ₩287,000원~ / 2박3일 ₩315,000원~
광주에서 출발하는 홍도 1박2일 ₩17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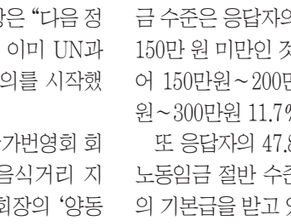
여름방학특가 일본큐슈 빌라형콘도숙박 4일!! 최성수기 여름휴가
단 2회!! (7/19, 20) ₩299,000
불포함 : 유류할증료, 기사&가이드팁, 국내수송

일본의 카이세키요리를 맛볼 수 있는 온천여행 4일
▶출발일 : 7/26,29,8/6,11 ₩399,000
불포함:국내수송, 기사&가이드팁(30,000)

일 본

여름방학 광양훼리로 떠나는 북큐슈
5일 북큐슈 ▶ 7/17,19,24 ₩439,000원

부산에서 카멜리아호로 떠나는 큐슈여행



4일 일본 빌라형 콘도 ₩299,000원
▶ 출발일 : 7/14,17,19

4일 일본 나가사키, 큐슈 온천여행 ₩399 ,000원
▶ 출발일 : 7/19,26,29

4일 일본의 전통료칸 카이세키요리를 맛볼 수 있는 온천여행 ₩399,000원
▶ 7/26,29,8/6,11
불포함:국내수송, 기사&가이드팁(30,000)

중 국

광주출발
4일 연길 백두산 ₩1,259,000원
▶ 출발일 : 8/1, 4
불포함사항: 개인비용,가이드&기사팁(20$),4계절가무료(25$)

동 남 아

무안출발 무안출발하는 필리핀 보라카이 직항!!
*운항일 7월 23일~ 8월 24일
2박4일 ₩799,000원 ~ (수요일출발)
3박5일 ₩849,000원 ~ (토요일출발)
불포함사항: 기사&가이드팁, 유류할증료

무안출발하는 마카오, 홍콩 전세기 !! *운항일 7월 27일~ 8월 17일
2박4일 ₩749,000원 ~ (수요일출발)
3박5일 ₩949,000원 ~ (토요일출발)

인천출발
6일 베트남&캄보디아 ₩789,000원 ~
불포함사항:기사&가이드팁(50), 생수&공동경비(10$)

미 주

7일 LA 자유여행 ₩2,390,000원 ~
인천-로스엔젤레스-인천

7일 미서부 정통 미서부일주 ₩2,890,000원 ~
인천-샌프란시스코-요세미티-라스베가스-그랜드캐년-유니버스-로스엔젤레스-인천

8일 미서부/디즈니 ₩3,090,000원 ~
인천-샌프란시스코-요세미티-라스베가스-그랜드캐년-유니버스-로스엔젤레스-인천
불포함:유류할증료,각종개인경비,현지선택관광,기사&가이드팁(1일-10$기준), 각종매너팁

지중해

9일 터키 / 그리스 (OZ) ▶출발일 : 8/13 ₩3,190,000원
불포함:현지선택관광,가이드&기사팁/공동경비(1일당-10유로),각종매너팁

※ 당시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3-1호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